

김정환 “광주 FC 해결사 나도 있소”

서울 이랜드전서 첫 골...펠리페 공백 메꾸며 3-1 승리 견인 26일 K리그 2 아산 원정...공격 다변화로 13연속 무패 도전

박진섭 감독의 '믿음'에 응답한 김정환이 광주 FC의 달라진 힘을 보여준다. 광주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2 2019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이 경기를 통해 팀의 새 역사 쓰기에 나선다. 광주는 앞선 라운드 서울이랜드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리그 선두를 지켰고, 12경기 연속 무패(7승 5무 5패 26점)라는 구단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을 경신했다. 기본 좋았던 승리에 더 의미가 있던 부분은 김정환의 시즌 첫 골이 터졌다는 것이다.

올 시즌 광주의 '해결사'는 펠리페였다. 펠리페는 올 시즌 9경기에서 10골을 터트리며 팀의 주포로 맹활약하고 있다. 팀 득점(20점)의 절반을 책임졌다. 그만큼 펠리페에 집중된 화력이 광주의 고민이기도 했다. 올 시즌 박 감독이 기대했던 자원 중 한 명인 김정환의 첫 골은 그래서 더 반가웠다. 펠리페가 발가락 타박상으로 빠졌던 이날 김정환은 공격의 포문을 열면서 3-1 승리를 이끌었다. 좀처럼 터지지 않는 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김정환은 경기가 끝난 후 "기본 너무 좋다. 정말

준비 많이 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며 "펠리페가 뛰든 안 뛰든 우리는 한팀이고 원팀이니까 끝까지 무패 계속해서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믿어준 지도자에게 골로 보답을 했다는 부분도 김정환을 웃게 했다. 김정환은 "골을 넣고 감독님에게 달려가려고 했는데 형들이 잡아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박 감독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정환의 세리머니에 대해 전해들은 박 감독은 "내가 골 많이 못 먹는다고 하도 혼을 내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오려고 그랬던 것 같다"며 웃은 뒤 "워낙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경기장에서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첫 골이 터졌으니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다"고 기

대감을 보였다. 펠리페가 빠졌던 세 번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사기를 끌어 올린 광주는 아산으로 가서 대승을 노린다. 광주는 앞선 아산과의 맞대결에서 펠리페의 헤트트릭과 김정환의 추가골로 4-0 대승을 거두는 등 상대 전적에서 2승 2무 1패로 앞서있다. 하지만 방심하기에 아산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 국가대표급 미드필더 이명주, 주세종이 견재하며 공격수 고무열은 7골로 득점 랭킹 3위에 랭크됐다. 또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한샘, 박재우 등이 이끄는 수비진도 든든하다. 공격 다변화에 성공한 광주가 아산전 승리로 선두 유지와 함께 무패 기록을 늘려갈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훈련도 놀이처럼 ~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대표팀 이강인(오른쪽)과 금호고 출신 김정환이 2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레코드 훈련장에서 공식 훈련을 펼치고 있다. /연남뉴스

호남의 아들들 U-20 출격

내일 포르투갈과 예선 1차전...김정민·엄원상·황태현 활약 기대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U-20 선수들의 '축구 전쟁' 전면에 선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25일 밤 10시 30분(이하 한국시간)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2019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정정용 감독은 이강인(발렌시아), 수비수 김현

우(디나모 자그레브), 골키퍼 최민수(함부르크) 등 해외파를 호출했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김정민(리퍼링)도 해외파의 힘을 보여주지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2015 FIFA U-17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던 김정민은 금호고 선배 기성용과 닮은 플레이로 '포스트 기성용'으로 불리는 특급 유망주

다. 그는 중원에서 한국의 승리를 지휘하게 된다. 광주FC가 지랑하는 공격수 엄원상(금호고 출신)은 아주대에서 2년 활약한 뒤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그는 특급 드리블 실력으로 '엄살라(엄원상+모하메드 살라)'로 통하기도 한다. 광양제철남초를 시작으로 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운 황태현(안산 그리너스)은 한국의 수비를 책임진다. 한편 한국은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29일 새벽 3시 30분 남아공, 6월 1일 새벽 3시 30분 아르헨티나와 대결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차명진 “존재감 꽃겠다”



오늘 KT전 선발...부상·군복무로 5년만에 데뷔
특급 하드웨어·묵직한 직구 강점 'KIA 유망주'
“긴장 보다 자신감...변화구 보완해 팀 보탬 될 것”

5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KIA 타이거즈의 차명진이 얼굴 알리기에 나선다. KIA 우완 차명진은 24일 KT위즈와의 홈경기에서 선발투수로 출격해 '5선발 오디션'을 펼친다. 순천 효천고 출신인 차명진은 지난 2014년 KIA의 우수지명 선수로 프로에 입단한 고졸 6년 차다. 특급 하드웨어와 묵직한 직구로 눈길을 끌었던 유망주였지만 마운드에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입단 첫해 스프링캠프 도중 팔꿈치 부상으로 중도 귀국해 수술대에 올랐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2년의 군 복무기간까지 더해 차명진은 KIA 팬들에게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이버 투수'가 됐다. 차명진은 지난 가을 마무리캠프를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았다. 투구폼부터 새로 시작한 차명진은 가장 자신에게 맞는 폼으로 6번째 시즌을 맞았다. 차명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폼부터 새로 고쳤다.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큰 틀은 유지하면서 안 아픈 것에 신경을 쓰면서 폼을 준비했다"며 "2군에서 꾸준히 안 아프고 던지고 있으면 기회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생각보다는 빠르게 폼을 받은 그는 지난 16일 KT와의 홈경기를 통해서 프로 데뷔전을 펼쳤다. 1

이닝을 던졌던 그는 지난 18일 한화전에서 3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 위임을 했다. "처음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앞만 보았다. 많이 떨렸다"며 웃은 차명진은 "1군에서 긴장감 있게 던지다 보니 구속이 늘었다. 스피드가 고등학교 때보다 안 나와서 고민을 했었는데 148km까지 나왔다. 열심히 하면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4이닝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변화구'는 차명진의 숙제다. 차명진은 "변화구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 포크, 커브는 원래 던지는 구종인데 빠른 게 하나 있어야 한다. 슬라이더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발 등판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크다. 동료들을 믿고 자신 있게 자기의 공을 던지겠다는 각오다. 차명진은 "부담도 있지만 기대가 더 된다. 재미있을 것 같다. KIA 최고 선수들이 수비하고 있으니 팀 믿고 던지겠다. 볼넷을 주지 않으면서 수비들을 믿고 하겠다"며 "그동안 많이 공금하셨을 것인데 1군에 오래 있으면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동기인) 찬호는 잘하고 있다. 나도 잘해서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운드 영전들 “무조건 적극적으로” 끝내기 주인공 한승택 “이 맛에 야구”

덕아웃 T 특특

▲장난도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 KIA의 사이드암 박준표가 오랜 재활을 끝내고 23일 마침내 1군에 등록됐다. 박준표는 올 시즌 KIA 마운드를 이끌 '전천후 투수'로 주목을 받았지만 위용중재거수술로 스프링 캠프 참가가 불발됐었다. 지난 4월 16일 퓨처스리그에서 첫 실전 등판에 나섰지만 이날 공에 다리를 맞았고, 발목까지 다치면서 다시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박준표는 "진짜 오고 싶었다. 팀에 빨리 보탬이 되고 싶었다. 빨리 던지고 싶었다"며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많았는데 지금 동기가 투수에 5명이나 있다. 장난도 치면 안 될 것 같고 책임감 가지고 할 것 같다"고 웃었다. KIA 엔트리에는 박준표와 함께 문경찬, 홍건희, 이준영, 이민우 등 5명이 동기 사이다.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 '안방마님' 한승택은 지난 22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생애 첫 끝내기 주인공이 됐다. 한승택은 5-5로 맞선 연장 10회말 1사 만루에서 3루수 옆을 빠지는 안타로 팀의 6-5 승리를 이끌었다. 데뷔 후 첫 끝내기 안타를 기록한 한

승택은 "내가 앞에 있어서 땅볼만 치지 말자고 생각했다. 내가 걸음이 느리니까 땅볼로 가서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공이 빠졌다"면서 웃었다. 한승택은 또 "이 맛에 야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야구하고 뒤에서 운동하고 그러는 것 같다"며 "기본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한승택을 대신해 먼저 마스크를 썼던 신범수는 첫 타석에서 데뷔 홈런을 기록한 뒤, 세 번째 타석에서 다시 한번 한방을 쏘아 올리며 멀티 홈런까지 기록했다. 데뷔홈런과 멀티홈런이 동시에 나온 경우는 앞서 19년 밖에 없었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 올 시즌 '젊은 마운드'의 내부 경쟁이 이뤄지면서 KIA의 불펜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운동의 부상 이후 마무리로 낙점된 문경찬은 빠르고 과감한 승부로 불펜의 핵심이 됐고, 전상현의 위력투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상승세에 맞춰 박홍식 감독 대행은 공격적인 피칭을 주문하고 있다. 박 감독 대행은 "포수에게 무조건 볼을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던지라고 주문하고 있다. 투수들이 공을 많이 던지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고 "적극적으로 피칭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